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FASHION 신규 컬렉션 런칭 및 대회 주최로 시장 선점

아웃도어 넥스트 테마는 '트레일러닝'⁽¹⁾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트레일러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트레일러닝은 트랙이나 일반 도로가 아닌 산길이나 숲길을 따라 달리는 스포츠로, 기존 변화가 큰 자연 속에서 10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발, 의류, 배낭 등의 장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발이 특히 중요하다. '노스페이스'는 소속 선수들이 2년에 걸쳐 달리며 테스트한 '벡티브(VECTIV)' 시리즈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고, '코오롱스포츠'는 아웃솔 전문 업체 '베리랩'과 트레일 러너 케디미나스 그리니우스의 협

업으로 탄생한 'TL-1'을 대표 제품으로 출시했다. '블랙야크'도 이번 시즌 '스카이 스피드 BK'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신발 외에도 베스트와 백팩, 모자 등 트레일러닝에 특화된 상품 개발과 색션 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TL-1'을 포함해 트레일러닝 특화 상품 9종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블랙야크'도 내년부터 신발, 의류, 모자, 가방 등 풀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머렐'과 '하이드록엔' 같은 아웃도

어 브랜드들도 트레일러닝을 핵심 카테고리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회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TNF100'을 국내 최대 트레일러닝 대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며 '블랙야크'는 제주도 '아카데미'를 기점으로 'BTR 50'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2020년부터 트레일 러닝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울주군과 협력해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대회'를 후원했다.


3D DIGITAL

월마트, 버추얼 쇼핑 플랫폼 '월마트 리' 런칭⁽²⁾

소셜 쇼핑을 위한 몰입형 플랫폼으로 차별화

월마트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큐레이팅하고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버추얼 쇼핑 플랫폼 '월마트 리(Walmart Realm)'를 런칭했다.

'월마트 리(Walmart Realm)' 가상 플랫폼은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큐레이팅한 세 가지 쇼핑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Maiphammy가 큐레이팅한 So Jelly의 수중 세계는 고객을 다채롭고 거품이 많은 바다로 초대하는 수중

왕국이다. 그리고 @makenzieandmalia가 큐레이팅한 빈티지 아메리카나를 재현한 Y!lternative, @the.navarosa가 큐레이팅한 뷰티와 패션의 발견인 Go Chromatic이 포함된다.

메타버스 플랫폼 Emperia의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월마트 리'는 고객을 상상력이 풍부한 가상 환경에 몰입시켜 쇼핑 경험을 혁신하려 한다. 이 환상적인 세계에서 쇼핑객들은 제품과 상호작용하고 향수를 자극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인터랙티브하고 재미있는 모험 같은 쇼핑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월마트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월마트 리가 이 인플루언서가 이끄는 가상 상점이 있는 몰입형 세계와 함께 최초의 디지털 쇼핑 경험으로 경계를 넓히고 있다"며 "이는 환상적이고 영감을 주며 매우 재미있다"고 말했다.


3D DIGITAL

바이오 소재로 만든 3D 프린팅 패션⁽³⁾

패션성과 지속가능성 강조한 여성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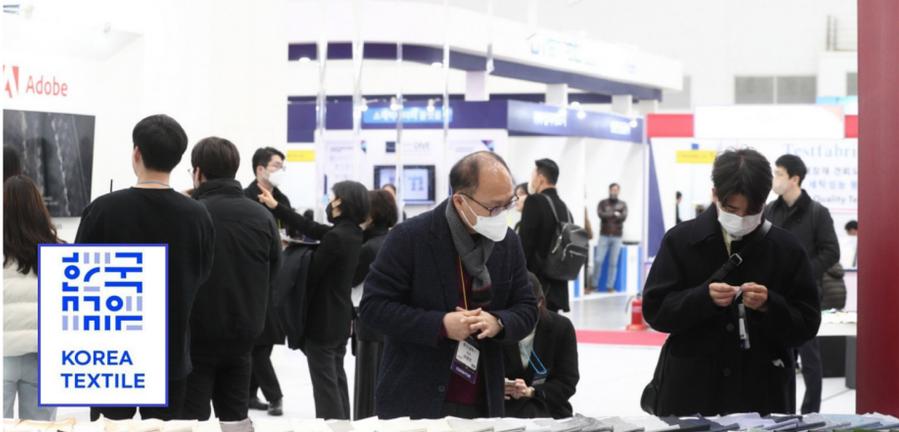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재료 과학 회사인 발레나(Balena)와 3D 프린팅 디자이너인 브리짓콕(Brigitte Kock)이 협력하여 3D 프린트 의류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번 3D 프린팅 컬렉션은 사이드에 컷아웃이 있는 팬츠와 오픈 백 패럴이 있는 크롭트 셔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팬츠는 엉덩이 부분은 불투명하고 아래로 갈수록 시투 디자인을 도입해 실제 외출용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러한 3D 프린팅 패션은 개인 맞춤 및 수요 제작이 가능하지만, 친환경 소재를 찾는 것이 난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레나와 브리짓콕은 발레나의 FlexTex3D 기술과 BioCir*flex3D 소재를 사용하여 3D 프린트 의류 컬렉션을 완성했다. BioCir-flex3D는 생분해 가능한 열가소성 소재로 사출성형, 압출 및 3D 프린트를 통해 가공할 수 있다. 이 소재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같은 소재에 대안을 제공한다.

발레나와 브리짓콕은 이번 컬렉션으로 최근 '2024 3D 파이오니어 챌린지'에서 패션테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발레나는 2022년 첫 3D 프린팅 제품인 BioCir 슬라이드 슈즈를 상업적으로 출시하는데 성공했고, 배리어블시츠(variable-seams)의 창립자이자 모듈형 3D 프린팅 디자이너 선구자인 브리짓콕은 화학섬유의 대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패션 소재를 연구하고 있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TEXTILE

섬산련,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개편⁽⁴⁾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인증 확대 및 간편 인증제도 마련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호, 이하 섬산련)가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는 2005년도부터 국산 섬유 소재 사용 촉진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섬산련이 운영해 온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한다.

섬산련은 섬유패션 스트림과 협력을 통해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섬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주요 내용

▲인증범위 확대 ▲기업자율인증제 도입 ▲플랫폼 구축 ▲인증마크 보급 확산 등을 포함했다.

먼저 기존 인증기준(원단~완제품 및 원사~원단) 외에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국산임을 인증

하는 신규 절차를 추가했다. 기존 제3자 인증제도(현장실사)와는 별도로 기업자율인증(자기적합성선언) 절차를 추가 도입해 간편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플랫폼을 구축해 인증절차 디지털화, 생산 이력 추적 및 국내 섬유패션 제조 공급망 관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신규 제작해 기업의 마케팅 및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가 PFAS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TEXTILE

방글라데시, 영원한 화학물질 PFAS로부터 위협⁽⁵⁾

섬유 산업 PFAS 사용 단계적인 중단 촉구

방글라데시의 주민들이 의류 산업으로 인해 PFAS(과불화화합물)에 노출될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글라데시 환경 및 사회 개발 기구(ESDO)와 IPEN의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지표수와 수돗물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베네통, C&A, 퀵비, 클리언, H&M, 마크스앤스펜서, 세인즈버리, 자라 등의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섬유 제조 허브 근처 31곳의 강과 호수에서 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

과, 31개 샘플 중 27개(87%)에서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됐고, 18개 샘플(58%)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제거 대상인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전체 샘플 중 19개(61%)는 EU 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PFAS 수치를 보였다.

섬유 생산 시설 근처에서 채취한 물 샘플은 더 높은 농도의 PFAS를 포함하고 있어 섬유 산업이 PFAS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보였다.

의류 및 섬유 부문이 전 세계 PFAS 사용의

50%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PFAS 배출 기여자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는 이류 생산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시장이다.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전국 3,500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PFAS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ESDO와 IPEN은 섬유 산업이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도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처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매출이 285% 증가한 2023년 실적

FASHION

르네상스 도래한 '아베크롬비'⁽⁶⁾

23년 285% 주가 상승...역사상 최고의 1분기 실적

1990년~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의류 소매업체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 Fitch)'가 역사상 최고의 1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강력한 복귀를 알렸다. 작년 대비 22% 증가한 10억 달러(한화 1조 3,850억원)의 순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매 브랜드 '홀리스터(Hollister)'도 12%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 Fitch)'는 지난해 주가 상승률이 285%를 기록하며 엔비디아보다 높은 성장률로 주목받은 바 있다.

프란 호로위츠(Fran Horowitz)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민첩한 추격 능력과 재고 규율을 활용하여 관련 상품 구성과 매력적인 마케팅으로 계절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모든 정가 판매와 프로모션, 와이드 레그 로우 라이즈 진과 같은 유행을 이해하여 실적을 높였다"며 "무엇보다 지난 7년 간의 변화와 포스트 팬데믹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는 한때 바닥을 쳤던 회사였다. 2016년 미국 고객만족지수에서 가장 싫어하

는 소매업체로 선정됐고, 소비자들이 향후 넷 세가 가득한 매장 분위기와 지나치게 성적인 모델에서 벗어났으며, 회사의 잇따른 논란에 실망을 냈다.

2017년 호로위츠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매장을 밝게 하고 재고를 개편했으며, 사이즈를 확대하고 젊은 전문가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옷차림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캐주얼 패션 트렌드에 잘 맞아떨어지며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아패럴뉴스, 아웃도어 '트레일러닝' 본격 공략, 24년 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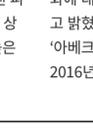
2.FASHIONUNITED, Walmart launches influencer-curated virtual shopping platform, Walmart Realm, 24년 5월 24일

3.ATA, Sustainable 3D-printed clothing with biomaterial, 24년 6월 1일

4.한국섬유신문, 섬산련,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개편...수출 판로개척 지원, 24년 5월 30일

5.SOURCING JOURNAL, Bangladesh May Face 'Significant Threats' of PFAS Exposure Due to Apparel Sector, 24년 5월 30일

6.FORTUNE KOREA, 르네상스 도래한 아베크롬비, 24년 5월 31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